온니컵 커피 키트 연동 플랫폼 기획안

# 1. 회원/원두·상황 관리

## 문제점

• 현재 기능은 일반적인 회원 가입, 사전 정보 입력, 원두·상황 관리까지 설정되어 있지만, 커피키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요소(예: 키트 인증번호, 시음 세트 연동 등)가 없음.

• 단순한 회원관리로는 ‘키트 구매 → 기록 → 공유’ 흐름을 데이터화하기 어려움.

## 보완 방법

• 키트 전용 QR코드/시리얼 등록 기능: 키트 박스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해당 원두·시트가 플랫폼에 불러와짐.

• 사용자 맞춤 환경 선택: “가정/카페/수업” 같은 상황을 기록할 수 있게 하여 같은 원두도 환경별 데이터를 비교 가능하게 함.

## 예시

👉 키트 구매자가 QR코드를 찍으면 앱에서 자동으로 “콜롬비아 워시드 · 2025년 8월 배치”가 등록 → 사용자가 집, 직장, 클래스 중 선택 후 시음 기록 입력.

# 2. 커핑 노트 기록

## 문제점

• 현재는 SCA 7개 카테고리 중심 기록만 언급. 초심자나 홈바리스타가 접근하기엔 진입 장벽이 높음.

• 기록을 단순히 텍스트로만 남기면 학습효과가 적고, 재미가 떨어짐.

## 보완 방법

• 레벨별 기록 모드 제공:

• Basic 모드: 단맛·산미·쓴맛 3가지만 체크 (홈바리스타용).

• Advanced 모드: SCA 7카테고리 세부 기록 (전문가용).

• 자동 피드백: 기록 후 AI가 “당신은 과일 향을 민감하게 느끼는 편입니다. 다음에는 에티오피아 내추럴을 추천합니다.” 같은 코칭 제공.

## 예시

👉 초심자가 브라질 내추럴 키트를 평가 → “단맛 강함 👍, 산미 약함 👎” 체크 → 앱이 “당신은 단맛 중심 커피를 좋아하네요! 다음 클래스에서 단맛 표현 비교 실습을 추천합니다.”

# 3. 게시판/채팅

## 문제점

• 단순 게시판/댓글 형태로 끝날 경우 활성화가 약할 수 있음.

• 데이터 기반 연결(키트별 후기, 센서리 기록 공유)이 부족.

## 보완 방법

• 키트별 전용 게시판: 같은 원두 키트를 경험한 사람들끼리 의견 공유.

• 데이터 시각화 공유: 본인의 향미 기록을 그래프로 변환해 커뮤니티에 올릴 수 있게 지원.

## 예시

👉 “온니컵 브라질 내추럴 키트” 게시판에 들어가면, 10명의 기록이 스파이더 차트로 시각화되어 평균 향미 스펙트럼 확인 가능.

# 4. 로그/이력 및 SNS 공유

## 문제점

• 로그는 단순 기록으로 끝남. 실제 학습·마케팅 효과가 약할 수 있음.

• SNS 공유가 일반적인 포스팅 수준이라 “전환”까지 이어지기 힘듦.

## 보완 방법

• 성장 트래킹 기능: “지난달보다 산미 인식력이 30% 향상” 같은 통계 제공.

• SNS 공유 자동화: 기록 후 인스타 릴스용 카드 이미지 자동 생성 → 해시태그(#OnlyCupTasting, #MyCoffeeJourney) 자동 삽입.

## 예시

👉 사용자가 기록 완료 후 “공유하기” 버튼 클릭 → 인스타용 카드 이미지 자동 생성 (“오늘의 커핑: Ethiopia Guji, 향미 키워드: 복숭아, 재스민, 꿀”)

# 5. 추가 부가기능 (차별화 포인트)

## 보완 방법

• AI 레시피 추천: 기록된 데이터 기반, 다음 브루잉 레시피를 자동 제안.

• 키트-클래스 연동: 키트 기록을 클래스 신청 시 자동 불러와 학습 포인트 제시.

• 구독형 모델: 매월 1회 키트+앱 연동 쿠폰 제공 → 지속 참여 유도.

# 최종 정리

✔ 현재 기획은 기본 뼈대가 탄탄하지만, 커피 키트와의 직접 연동 포인트(인증·QR·자동 기록 불러오기)가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.

✔ 또한 초심자부터 전문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레벨별 기록 모드와 자동 피드백/추천 시스템을 추가하면 실제 온니컵 비즈니스와 시너지가 강해집니다.

✔ 마지막으로,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시각화 공유 기능과 SNS 자동 카드 생성을 넣으면, 단순 기록 → 학습 → 확산 →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